

시청자위원회

2025.03.27. 목

참석 : 위원 10명 불참(나민수, 박종일)
회사 5명

위원장

3월 중순까지 늦추위가 지역 곳곳에 봄 축제를 망쳐냈다고 합니다. 고민과 안도감이 들자마자 내 말로는 강풍이 거센 불길로 뒤도 펴고 있는 이 참상을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의 역사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예측하기 힘든지를 실감할 수 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시선을 우리 사회로 돌려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무려 100만 명, 소매 판매는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금 온 국민을 인질로 잡아놓은 듯한 계엄과 탄핵 정국은 더 많은 나이라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견제 장치는 바로 언론과 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교수가 한국에서 와서 한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 체계를 다시 한 번 믿어보면서 민주성을 회복을 이끌어낼 정론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3월 여수 MBC 시청자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인 사장님 인사 말씀 들겠습니다.

대표이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쁜 소식들이 많기는 한데 무엇보다도 산불이 좀 빨리 진화가 되고, 경북 지역 경남 지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리산 쪽에 옮겨가고 있는 불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늦게나마 저희 회사 사옥 앞마당에 불꽃이 피었습니다.

늦었지만 올 거는 오고 좋은 소식들 오기 마련이니까 우리 한 달 뒤에 될 때는 더 좋은 소식들 많이 갖고 좋은 얘기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들겠습니다.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부서별로 지난 회의 업무 설명과 다음 회의 계획 들어오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현 콘텐츠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콘텐츠센터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전국적인 산불 비상 사태가 일어나서 관련해서 지금 재난 방송 및 뉴스 특보 편성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난 문자 그다음에 재난 예비 방송 그다음에 뉴스 특보 이렇게 해서 매일 지금 2시간에 한 번꼴로 특보가 편성될 정도로 긴급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도 재난 위기 단계를 상향해서 적극적으로 방송사들이 대응하게

꿈 주문하고 있고 이에 맞춰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3월 주요 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들어서면서 지금 저희들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트로트 클래스도 공개홀에서 지난 3월 18일, 19일 양 이틀간의 공개 방송으로 해서 녹화를 진행을 했고, 4월 중순경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국전파진흥협회 프로그램 제작 지원 2차 면접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6개 정도 프로그램을 지원 했는데 2차까지 지금 4개 프로그램이 올라갔습니다. 조만간 선정 여부가 통보될 예정이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선정이 돼서 제작 지원금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까지 저희가 지역 MBC 공동 기획으로 해서 '우리는 지역에 살아요.'라는 프로그램을 16개사 네트워크로 해서 공동 기획 제작 송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역의 가치와 소중한 삶의 터전의 공유라는 이런 공익적 가치가 좀 반영이 돼서요. 서울에서 전국 방송 편성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5월 까지 매주 금요일 날 아이템 3개씩을 엮어서 지금 UHD로 지금 편성을 해서 지금 방송 중에 있습니다. 공익적 가치의 프로그램들이 지금 좋은 반향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부분에서도 '라디오 전망대' 중에 보이는 라디오 코너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ymca 토론만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라전 법정, 시는 뭐 하니 등의 새로운 콘텐츠까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라디오 전망대 조금 시청층이 조금 더 늘어가는 추세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월에도 역시 저희들 이제 '섬마을 여행사'를 비롯해서 기획 특집들 본격적인 프로그램 제작에 매진하는 또 달이 되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회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반영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전남의대 순천대 목포대 통합 관련한 지속적인 관심 부분들 저희 라전을 비롯해서 라디오 전망대를 비롯해서 아이тем들을 다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섬 박람회 관련 콘텐츠 기획들 이것들도 지금 적어놓은 바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 위기 대응 관련해서도 저희가 라디오 전망대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수판 보릿고개 이런 대책 시급 이런 부분이나 또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내란 사태 탄핵 심판 관련해서도 꾸준한 언론의 역할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지금 아이те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속한 업데이트 부분들 그래서 지금 경영심의센터에서 문화 사업 부분들 페이지, 메인 페이지들 그다음에 프로그램 페이지 그다음에 또 시청자 의견 관련해서도 지금 최대한 빨리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 반영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보도센터장

3월 달 보도는 알다시피 윤석열 탄핵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기획에서 계속 전달하고 있고요. 여수사건 특별법이라든지 여수 섬 박람회 준비 상황 그리고 저희들이 여천선이라고 지금 여수 산단에 여천선이 있는데 폐철도 부지를 어떤 재활용하는 문제 물론 이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 산단 업체 간에 논란이 있고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이 안건을 이제 아젠다로 선정해서 출발을 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내봤습니다. 여천선 재활용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대학생 등록금 지원 놓고 이제 집행부하고 의회 공방이라든지 점심이 지금 각 점심값들이 올라서 지역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업체 직원들이 이제 구내 식당의 인기 있다는 사회뉴스도 제작했습니다.

4월 달 아직 현재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현재 결정에 따른 대선 정국, 그다음에 불안한 지역 경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내용으로 계속 취재를 할 거고요. 버려진 섬을 보물섬으로 이제 기획을 저희가 이제 4월달에 보도해서 좀 할 내용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섬 박람회 앞두고 지역의 좋은 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산재된 섬을 다수 지금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어서 섬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섬으로 한번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섬을 좀 다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섬을 보물섬으로 기획 잡아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날이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고흥하고 광양 기초의원 선거인데요. 이것도 취재 하겠습니다.

지역 환자가 이제 수도권으로 환자가 이송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 수준을 좀 높여보자. 라는 그런 내용을 좀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서 순천시 하반기 전 필수 의료 재단 설립 요 문제도 지역 의료 체계 완결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작에서 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위기관련하여 보도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알다시피 그래서 석유화학 위기 생존의 갈림길이라는 거 고도 특집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오래된 뉴스가 메인 장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3시하고 5시 라디오 뉴스를 한 다음에 바로 실시간으로 올리도록 저희들이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시면 3시 5시 그날 당일날 나가는 뉴스들이 바로 업로드를 시키겠습니다.

방송사업센터장

올해 첫 여수아카데미 여수MBC 공개홀에서 진행했습니다. 박준 시인이라고 시인계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100여명 오셔서 잘 마무리 했습니다. 올해 섬진강 꽃길 마라톤은 4월 13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 6400명 정도 접수했는데 작년에 비해 약 2000명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건강이나 가족 단위 행사 런닝 크루 등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이 돼 인기 있는 아이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 잘 준비해서 다음 달 행사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9회 여수 거북선 축제가 저희가 수주를 했습니다. 행사는 5월 3~5일, 3일간 여수시 일원, 이순신 광장 인근에서 개최가 됩니다. 거북선 축제가 59회로 해서 사실 굉장히 전통 있는 축제인데 내부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음식점 부스 판매로 인해서 문제까지 돼서 또 경찰 조사 지금 재판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제 보존위원회가 빠지고 여수시가 직접 집행을 해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저희 여수 MBC가 거기서 축제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축제에 훼손되지 않게 잘 준비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전반적인 방송 실적과 함께 여러분의 시청 경험을 토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소감과 제안 들어보는 선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위원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박병희 위원

최근 재난사항과 관련하여 밤에도 산불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방송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이재민을 위해서라도 방송을 할 필요 있음. 재난지역에서 전기가 끊어져서 통신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인터넷에 의존하기 보다는 TV, 라디오 방송으로 정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박성주 위원

작년 봄에는 물로 문제 있었고, 올해는 산불이 문제. 전반적인 사회 방지시스템이 부족하고 헬기 등 장비들이 노후화 되어 있음. MBC에서 각 시군별로 앞으로의 재난에 어떻게 대비되어 있는지 다뤄주길 바람.

섬 관련해서 너무 개발에만 치중되어 있음.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섬을 개발하는 것 보다는 있는 그대로 부각하고, 행사를 치루는 개도 같은 곳만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함. 섬박람회 관련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함. MBC에서 자원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된 방송도 해주었으면 좋겠음.

박병현 위원

시청자위원회 이후에 피드백이 잘 이루어져서 시청자위원으로서 뿌듯하고 의미가 있다. 어제 야당 대표가 무죄선고를 받고 전라남도 도지사가 사필귀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도지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부적합해 보인다. 산불이 확산되는 시점에 방송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한 멘트를 해주었으면 좋겠으며 앞으로도 여수MBC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관한 부분을 인식해주었으면 함.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외국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주유소라고 생각함. 옥탄가 표시 등에 관한 부분이 없음. 단순히 리터가격만 표시하고 있는 상황은 좋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옥탄가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지역에서 먼저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MBC에서도 고급유 등의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애숙 위원

현재 보호수가 100여 그루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아스팔트로 보호수가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다. 방송에서 그런 부분 취재를 부탁한다.

천지연 위원

고령화로 지방마을에 청년들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 정주형 인재를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학생들과의 진로상담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정주시킬까를 고민한다. 해외 성공사례

로 지역 코디네이터가 있다. 각 지역이나 마을마다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공사례를 보고 보도에서 반영해주길 바람. 청년들이 좋아할만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청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고민이 필요함.

나민수 위원

석유화학 위기 선제대응 관련하여 2년 전부터 정부에서 현장 파악하기 위해 왔었음. 기획재정부, 총리실 등 있었으나 지금까지 대책이 없었음. 최근 여수시에서 여수산단에 30명 정도 방문하였다. 매출액, 인원현황, 협력회사 현황, 가동현황, 인원감축 현황을 보고 했다. 보도는 있었으나 기자가 현장에 오지 않아서 아쉬웠다. 현장에 와서 직접적으로 현황 설명이랄지 그다음에 관련자 관계자 인터뷰 등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으면 추가해 했으면 조금 정부 차원의 실사라는 게 압박 아닌 압박을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음. 끊임없이 관심을 좀 가져주고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서 진행을 해주길 바람.

박소정 위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필요하다. 민주주의에는 현재 사법보다 언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글로 번역하는 부분은 맞춤법이 맞지 않아 보기 불편함. 또한, 홈페이지 내 데스크 인터뷰 관련해서 분야별 인터뷰란은 2022년, 지역별 데스크 인터뷰가 2024년 6월로 끝나있다.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주길 바란다.

여수MBC가 미래를 예측하는 보도를 해주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산불비상이 나온 상황에서 전라남도 산불비상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 해주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인 상황이고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위기인지 다루어 주었으면 한다. 산단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는 부분 다행이다 그 외에도 특집으로 보도 되었으면 한다. 지방자치 30년 다루었으면 한다. 특히 22개 시군의 특색이 없다. 이와 같은 보도가 있었으면 한다.

여순사건 신고접수가 개시 되었다고만 보도했음. 여순사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여순사건 특별법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효율적인 신고 방법은 없는지 다루주길 희망함.

여수mbc가 유튜브 활성화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거라 생각하며 그 일환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 해보길 바람.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희망을 만들고 있는 사람을 인터뷰해서 내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문화, 예술, 학계, 경제 등 지역사랑 관련 프로그램 내주길 바람.

위원장

주변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음. 인구소멸, 고령문제 등 정론으로서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도 정치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함.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관망이 아닌 책임을 다하였으면 함.

박경숙 위원

기후위기, 재난은 매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대응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사단체 등 공동체의 협력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중은 위원

여수MBC 만의 재난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주면 지역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MBC에서 추진예정인 산단위기 관련 특집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여수상공회의소와 함께 위기 극복 대응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울산시 벤치마킹 등 준비하고 있으며 특집 프로그램 제작과 함께 방안 마련하기를 기대함.